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 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본인의 위법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 대한 위증 교사 및 부실한 내부감사와 보복인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본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위증을 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회유, 보복을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류희림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류희림의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한다.

제안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앞장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보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해당 민원에서는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상당수의 민원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의 사적이해관계자 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류희림이 민원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류희림은 이러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본인은 민원인의 정보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정보, 본인과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2025년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는 2023년 9월 14일 류희림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했다고 밝힘.

2023년 9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2023년 9월 5일 제기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류희림이 이를 심의해선 안 된다는 것임.

류희림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후로도 최소 7차례에 걸친 방송소위 및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등이 제기한 민원을 직접 심의하였고,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임.

뿐만 아니라 류희림은 본인의 위법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등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민원 제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수십 차례 주장한 바, 이 역시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는 류희림의 부패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행동강령 위반)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난 후 류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함. 이는 류희림이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위

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류희림은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 색출을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해온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의 보복 행위를 자행해 왔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류희림이 민원사주 의혹,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본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위증을 하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회유, 보복을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류희림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의함.

아울러 류희림의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함.